

Art

아트인컬처
April 2015

Special Feature /
아시아, 글로벌 마켓의 리더
핫플레이스 홍콩을 가다
스타작가 가격 분석

Artist /
윤석남,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

Theme Special /
패션, 미술관으로 입성하다

Critic /
김종영 탄생 100주년 특별전

Abroad /
뉴뮤지엄트리엔날레

‘블루칩’ 단색화 홍콩에서 세계로

지난해 한국 미술시장을 들썩였던 단색화 열풍은 3월 홍콩에서도 이어졌다. 1년에 한 번 컬렉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미술인이 모이는 이 ‘골든타임’에 맞춰 ‘소더비갤러리는 단색화를 중심으로 <아방가르드 아시아>전 (3. 13~27)을 열었다. 이제는 작품 가격만이 화두가 아니다. 아트페어 중 세계 추상미술사를 논하는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단색화’라는 용어가 번번이 거론됐고, 해외 주요 미술관들은 단색화 작품을 사들여 향후 기획전 개최를 기대하게 한다. 미술시장에서의 호황과 함께 단색화 열풍의 시발점과 학술적 접근의 중요성을 짚어 본다.

/ 정연심

요즘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미술계의 주요 화두는 단색화다. 단색화 열기는, 1998년 뉴욕의 아시아소사이어티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기획했던 <Inside Out: New Chinese Art>전 이후 전 세계에서 중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던 현상과 유사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술시장에서는 장 샤오강 등을 중심으로 한 회화작품이 인기를 끌었고, 학계에서는 중국 특유의 개념미술과 설치 작업 등을 선보였던 쉬빙, 차이귀창 등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중국 현대미술에서 시니컬 팝 등의 흐름을 이어가던 거장들 이후, 한국의 단색화 역시 시장을 중심으로 일회적인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단색화를 이끌었던 박서보를 중심으로 하종현과 정상화 등의 작업은 이번 아트바젤홍콩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다. 아트바젤홍콩2015가 열리는 동안, 홍콩 소더비갤러리 S12에서는 <아방가르드 아시아>전이 열렸다. 각각 한국의 '단색화'와 일본의 '구타이' 작품을 중심으로 한 2개의 전시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 구타이 자체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신체를 이용하는 작업 등이 많음에도 평면 위주로 전시돼 실제로 구타이 자체의 특징을 느낄 수 없어 전시 자체는 평이하게 기획됐다. 그렇지만 '단색화'의 경우, 박서보의 <묘법>과 정상화가 1969년에 제작한 초창기 추상화 작업 등을 선보였고, 단색화 작품과 함께 추상 성향의 작업도 함께 전시됐다. 여기에는 김창열, 김환기, 이우환, 정창섭, 하종현의 작품이 포함됐다. 소더비 전시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단색화로 향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단색조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희끗희끗하면서도 여러 톤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단색화' 특유의 형식적 미학적 특징들은 한국인이 아닌 외부인의 눈에는 새삼 새로운 지점을 보여 주는 듯했다.

관객들은 소더비 전시에서 조용하면서도 여러 톤을 가진 색채들과 물감 특유의 물성, 박서보의 <묘법>을 통해 엿보이는 강한 듯 느린 반복적인 연필 선을 진지하게 관찰했다. 또한 마대 뒤에서 밀어 낸 하종현의 <접합> 작품들은 노동의 반복적인 제스처를 통해



물성이 캔버스에 차곡차곡 누적되는 한국 회화 특유의 스타일을 구현했다. 박서보와 하종현은 홍콩 소더비에서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단색화의 발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오는 5월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베니스의 팔라초콘타리니폴리냐(Palazzo Contarini Polignac)에서 특별전(이용우 기획) 형식으로 단색화 전시가 열리며, 소더비 전시와 달리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들만을 중심으로 총 70여 점의 전시가 대대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국제 미술시장은 물론 학술계도 단색화 열풍

아트바젤홍콩2015의 공식 오프닝에서 시작된 단색화의 열기는 다음 날은 소더비에서 전시된 단색화 전시와 작가들의 토크로 이어지다가, 또 다른 페어인 아트센터럴에서 갤러리현대 부스의 단색화 전시, 그리고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K옥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정상화, 하종현 등을 중심으로 한 단색화는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소더비는 4월 4일과 5일 아시아 현대미술 옥션에서 단색화를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미술시장에 민감한 이들은 과연 단색화의 열기가 오래 갈 것인지, 이러한 열풍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자문하며, 단색화 외의 한국 현대미술도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길 바라고 있었다.

위부터 · <아방가르드 아시아>전 전경 2015 홍콩 소더비갤러리 S12_한국의 단색화와 일본의 구타이를 중심으로 2개의 전시를 함께 꾸렸다. / <아방가르드 아시아: 한국 대가들의 계보>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계비엔날레협회 회장 이용우와 구겐하임미술관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의 특강이 3월 13일 열려 성황을 이뤘다. / 3월 14일 진행된 아티스트 토크 후 박서보(왼쪽)와 하종현(오른쪽)

왼쪽 페이지
정상화 <무제 96-5-2>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130cm 1996_아트바젤홍콩2015 <갤러리>
섹션 국제갤러리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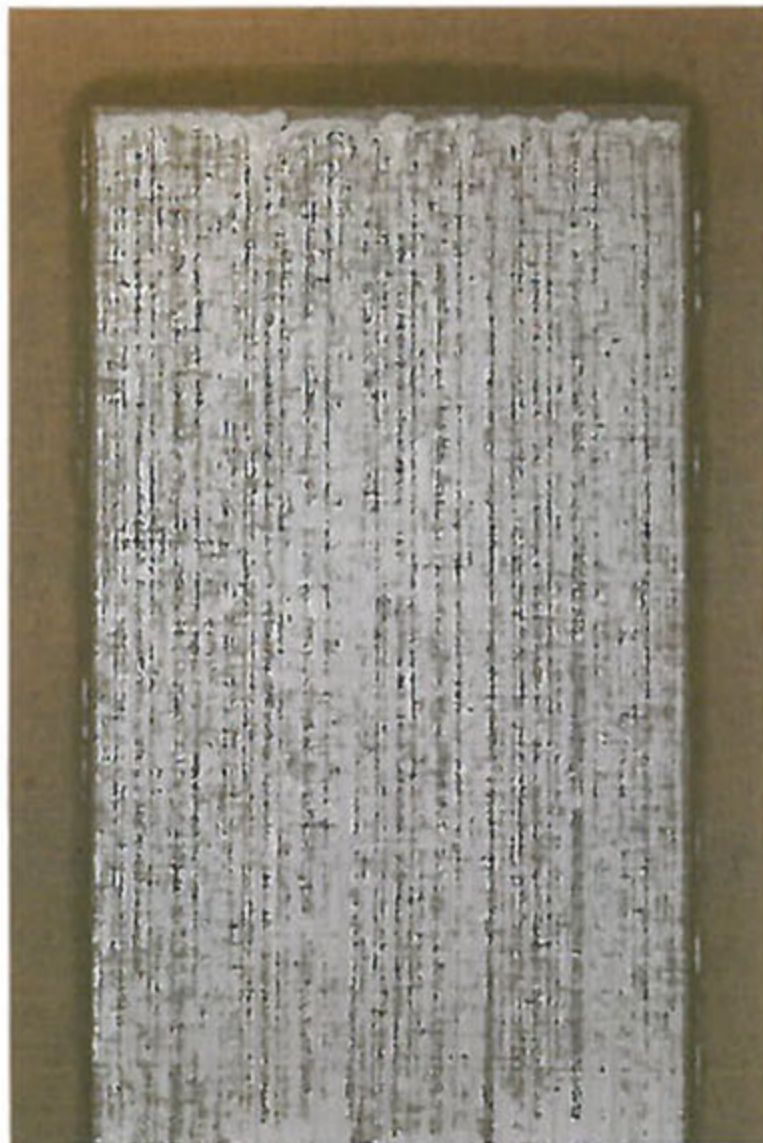
위 · 아트바젤홍콩2015 <살롱> 섹션의 첫 번째 코너 진행 장면. 큐레이터 듀오 샘&틸, 미국 작가 미카 타지마, 두바이 갤러리스트 우메르 부트는 <Abstract Space>를 주제로 추상 미술을 논하며 '단색화'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아래 · 하중현 <Conjunction 09-009> 캔버스에 유채 180×120cm 2009_아트바젤홍콩2015 <갤러리> 섹션 블룸앤포갤러리 출품작

오른쪽 페이지

위 · 홍콩 아트페어 아트센트럴의 갤러리현대 부스 전경 2015_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이우환의 작품 2점을 제외하고, 출품한 박서보 정상화 하중현의 작품을 모두 판매했다. 특히 정상화 작업은 북미 미술관에 컬렉션됐다.

아래 · 아트바젤홍콩2015 <갤러리> 섹션 페로탱갤러리 부스 전경. 박서보의 <묘법> 2008년 작 2점, 2012년 작 1점과 파올로 피비의 북극곰 작품으로 별도의 공간을 꾸렸다.



단색화의 열기는 세계의 주요 옥션이나 상업 갤러리등을 중심으로 한 미술시장에서만 확산된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색화의 미학을 담론화시키려는 현상도 함께 엿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의 경우, 미술시장은 학술계와 비평계의 흐름이 함께 가고 있다. 미술시장과 미술비평은 서로 배타적인 경우도 있지만,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뿐만 아니라 미술관에서도 학술 연구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시란 단순히 작품을 벽에 걸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뒷받침된 연구 경향과 성과를 중심으로 큐레이터가 각자 자신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 단색화를 다룬 전시에는 작가 토크 외에도 콜로키움, 심포지엄, 워크숍이 함께 준비된다.

국내 유수의 갤러리들이 1970년대 이후부터 2010년까지 단색화 전시를 여러 면에서 다뤄 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색화의 인기는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갤러리현대의 <한국의 추상회화>전(3. 25~4. 22)은 박명자 회장이 1970년 인사동의 작은 공간에 화랑을 열면서 시작된 한국의 추상화와 단색화 전시를 짚고 있다. 이 전시는 한국 추상화가들과의 우정과 믿음으로 일궈 온 한 개인의 열정과 신념을 보여 준다. 현재 단색화의 열풍을 국내에서 주도하고 있는 갤러리들은 모두 그들의 노고와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단색화뿐만 아니라 민중미술, 설치, 영상 매체 등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지형도를 구성하고, 한국 미술계의 지층을 뒷받침한 작가, 갤러리스트, 비평가, 큐레이터, 컬렉터 등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학교재, 현대, PKM 등 국내 갤러리는 물론, 박서보의 경우 작년 파리 페로탱에서 개인전(김용대 기획)을 열었고, LA의 블룸앤포(조앤기 기획)와 상하이의 한국문화원 및 SPSI미술관(정준모 기획)에서도 단색화 전시가 열리면서 단색화 작품은 미술시장 가격 면에서 이전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의 컬렉터가 '미술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구겐하임미술관이나 디아비컨(Dia Beacon), 홍콩의 M+ 등과 같은 미술관들이

단색화를 구입했다는 것은 한국 추상미술이 이미 학술적으로 빠르게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열풍은 마치 무언가에 전염되는 것처럼 빠르게 확산되는데, 아트바젤홍콩이 토크 식으로 기획하는 <살롱>에서도 단색화는 여러 번 거론됐다.

국내 전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색화 전시는 2012년 윤진섭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한 <한국의 단색화>전이였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오는 단색화를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의 추상예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광인식, 김환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윤형근, 하중현 등을 중심으로 총 31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150여 점이 전시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단색화 컬렉션도 뛰어났으며, 전시장 맨 뒷부분에 있는 '성좌'와 같았던 한국 현대미술과 서구/아시아 현대미술의 매핑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 전시 이후, 곧바로 이어진 하중현 개인전은 초기 'AG'를 통해 등장했던 그의 실험작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달라지는 <접합>을 보여 줬다. 두 전시를 통해서 국내에서 단색화 연구자들은 모두 특강을 했거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작한 '영상' 인터뷰에 등장해 한국 단색화의 미학적 특징이나 정체성을 규명했다. 당시 단색화 전시 중에 볼 수 있었던 영상 인터뷰나 아카이브 도서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읽게 해 주는 학술적인 기여를 했다. 윤진섭은 단색화 1세대에 대한 조명을 넘어 이번에는 2세대 중심의 전시를 기획한다고 하니, 눈여겨 볼 만할 것이다.

한국 비평사 재조명, 영문 비평서 출판 시급

지난 3월 아트바젤홍콩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색화 열풍을 직접 느꼈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이 열풍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많을 테다. 두려움이란, 시장 가치가 지속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라면 이것이 학술적으로 확장될 것인가의 문제를 동반한다. 나는 시장 연구자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단색화는 계속 갈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단색화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해외



〈아방가르드 아시아: 한국 대가들의 계보〉전 전경
2015 홍콩 소더비갤러리 S12

오른쪽 페이지
위 · 권영우 〈무제〉 종이에 과슈 224×170cm 1986_아트바젤홍콩2015 〈갤러리〉 섹션 국제갤러리 출품작
아래 · 권영우 〈무제〉 종이에 과슈 162.2×130.3cm 1984_아트바젤홍콩2015 〈갤러리〉 섹션 국제갤러리 출품작

미술시장에 먼저 진출했던 이우환이나 타 작가들에 비해 한국 추상회화의 시장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단색화는 단순한 인기 품목이 아닌 학술 가치를 지닌 연구 대상으로,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을 통해 이미 수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다. 단색화, 아니 한국 현대미술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짚어 보고 싶다. 첫째, 단색화의 한국 비평사에 대한 재조명이다. 단색화 1세대 화가들은 예전에 비해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단색화를 비평했던 당대의 평론가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거의 없었고, 유난히 한국의 경우 비평가들의 글은 가벼운 감상조의 글이므로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013년 당시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가 출간되면서, 단색화의 대표적인 평론가 이일이 썼던 많은 텍스트들은 시대, 주제별로 출판됐다. 책 출간 기념의 일환으로 당시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던 단색화 작품들을 꺼내 전시를 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2014년 가을에 전 세계 63개국의 평론가들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는 작고 평론가에게는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일 유족에게 ‘평론가상’을 전달했다. 이 상을 수상한 비평가를 위해 영문 번역 작업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일이 남긴 〈확장과 환원의 역학〉(1970)을 비롯해 비평적 맥락에서 중요한 그의 글이 영문으로 출간될 것이다. 국내에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백색은 생각한다〉와 같은 논쟁적 글은 우리가 단색화를 사유할 때 담론적 관점에서 복잡한 지점들을 제기한다. 단색화 작가들과 동시대에 가장 가깝게 호흡했던 비평가의 텍스트가 될 것이다.

둘째, 단색화 관련 영문 비평서의 부재가 눈에 띈다. 단색화를 국제화할 담론 형성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 단색화에 대한 비평 글을 많이 쓴 이들은 이일 이외에도 오광수가 있을



것이다. 그의 생애는 한국 현대회화와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갤러리현대의 추상 전시 글을 50% 이상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단색화 관련 평론가들은 서성록, 윤진섭 등이 있으며, 김미경, 윤난지, 정무정 등도 학술적인 연구 논문의 형태로 글을 출판했다. 최근 미술시장 전문가인 서진수는 단색화와 미술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상기한 일부 저자들로 구성된 단색화 연구물을 출판(예정)할 예정이고, 영어로도 번역할 계획을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앤기가 뉴욕대 박사논문으로 단색화 연구를 진행했으며(이후, 책으로 출판), 북미와 유럽의 해외 연구자들이 단색화를 비롯한 한국 현대미술을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집필하고 있다. 2014년 홍콩의 M+에서는 <일본, 한국, 타이완의 전후 추상>이란 제목으로 워크숍을 열어 일본, 타이완, 북미 등에서 온 연구자들이 아시아의 추상예술을 다루었고 이후 이를 영어로 출판하고, 중국어로 번역했다. 여기서 필자는 이일과 단색화의 '환원'과 단색화 전시를 통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공간'을 다뤘다. 수많은 단색화 연구가 국내에서 있었지만, 영어 앤솔로지조차 없는 상황이니만큼 국내 연구 자료가 영문 앤솔로지로 출간될 필요가 있다.

단색화의 국제화, 담론화

단색화에 대한 담론 연구가 집요하게 필요한 이유는, 미술시장에서 자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미학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색화는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국제적이면서도 학술적인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술시장의 흐름에서만 단색화의 현상을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영문 저서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의 미술관과 아시아의 주요 미술관에 한국 현대미술의 미학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단색화 연구를 통해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서구인이 보기에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나 모노크롬 회화에서 볼 수 있었던 외형적인 추상성이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단색화는 한국 특유의 정치적 상황과 미학적 기반에서 발현된 우리 고유의 색깔을 보여 준다. 깔끔하고 엄정한 스타일을 강조한 서구의 작가들과 달리, 단색화 작가들은 특정 색을 첩첩히 중첩시킨 물질성을 강조해 엄청난 노동과 집중력을 통해 '무위'의 정신 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서구적 성격보다 우리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구인은 우리의 미술이 무엇인가를 '쌓는' 느낌을 전달해 준다고 말하곤 한다. 이에 대해 '동양적인 것을 동양화(orientalizing orientalism)'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색화가 단색화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서구에서 진행된 '사조' 형식의 추상예술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통해 면면히 이어진 '단색조' 경향의 추상예술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단색화는 이제 'Dansaekhwa'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며 열기를 넘어 하나의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국제화되는 단색화. 단색화는 담론을 계속 만들어 내어야 한다.

